

기특한 국어 기출 문제집 정오표(0405)

1권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21	<p>[18번 내용 수정]</p> <p>② [X] '담배'는 영어 'tabacco'에서 온 외래어입니다.</p>	<p>② [X] '담배'는 포르투갈어 'tabaco'에서 온 외래어입니다.</p>
p.25	<p>[01번 문제 해설 띄어쓰기 수정]</p> <p>① [X] 'ㄴ, ㅁ, ㅇ'은 유음이 아니라 비음입니다. 비음이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유음이란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말하며, 국어의 유음은 'ㄹ'뿐입니다.</p> <p>② [O] 'ㅅ, ㅆ, ㅎ'는 마찰음입니다. 마찰음이란 입안이나 목청 사이를 좁혀서 공기가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며 마찰하는 소리를 말합니다.</p>	<p>① [X] 'ㄴ, ㅁ, ㅇ'은 유음이 아니라 비음입니다. 비음이란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유음이란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말하며, 국어의 유음은 'ㄹ'뿐입니다.</p> <p>② [O] 'ㅅ, ㅆ, ㅎ'는 마찰음입니다. 마찰음이란 입 안이나 목청 사이를 좁혀서 공기가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며 마찰하는 소리를 말합니다.</p>
p.30	<p>[04번 중복 문제 및 해설 삭제]</p> <p>04 [17 경찰1채]</p> <p>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p> <p>① 시계 [시계/시계]</p> <p>② 문법 [문뽕/뽕뽕]</p> <p>③ 읊고 [읍꼬]</p> <p>④ 되어 [되어/되여]</p>	<p>삭제</p>
p.32	<p>[10번 문제 해설 수정]</p> <p>④ [X] '맴- + -어서 → 매워서'이므로 'ㅂ'이 'ㄱ'로 대체되었습니다.</p>	<p>④ [X] '맴- + -어서 → 매워서'이므로 어간 발음 'ㅂ'이 어미 '-어' 앞에서 'ㄱ'로 바뀌고 어미와 축약되었습니다.</p>
p.36	<p>[04번 문제 해설 '-' 추가]</p> <p>② [X] '머리틀'은 명사 '머리'와 조사 '틀'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숙이어'는 용언 '숙다'에 사동형 접사 '-이'와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것입니다.</p>	<p>② [X] '머리틀'은 명사 '머리'와 조사 '틀'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숙이어'는 용언 '숙다'에 사동형 접사 '-아'와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것입니다.</p>

p.40	<p>[02번 문제 해설 띄어쓰기 수정]</p> <p>① [O] 읽어 보다: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더운가 보다: '보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렵것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로 쓰였습니다.</p>	<p>① [O] 읽어 보다: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더운가 보다: '보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렵것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로 쓰였습니다.</p>								
p.46	<p>[14번 문제 해설 수정]</p> <p>① [X] '누르다'는 '누르러'로 활용하는 '러' 불규칙 동사입니다. '오르다'는 '올라'로 활용하는 '르' 불규칙 동사입니다. ④ [X] '부르다'는 '불러'로 활용하는 '르' 불규칙동사입니다. '푸르다'는 '푸르러'로 활용하는 '러' 불규칙동사입니다.</p>	<p>① [X] '누르다'는 '누르러'로 활용하는 '러' 불규칙 형용사입니다. '오르다'는 '올라'로 활용하는 '르' 불규칙 동사입니다. ④ [X] '부르다'는 '불러'로 활용하는 '르' 불규칙동사입니다. '푸르다'는 '푸르러'로 활용하는 '러' 불규칙형용사입니다.</p>								
p.47	<p>[14번 기특 + 용언의 활용 예시 수정]</p> <table><tr><td>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td><td>'ㅎ' 불규칙</td><td>'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가 오면,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도 '-애/-에'로 바뀐다</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다랗다 → 커다라니, 커다랄, 커다라면, 커다라오.• 파랗다 → 파라니, 파랄, 파라면, 파라오.• 노랗다 → 노라니, 노랄, 노라면, 노라오.</td></tr></table>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ㅎ' 불규칙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가 오면,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도 '-애/-에'로 바뀐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다랗다 → 커다라니, 커다랄, 커다라면, 커다라오.• 파랗다 → 파라니, 파랄, 파라면, 파라오.• 노랗다 → 노라니, 노랄, 노라면, 노라오.	<table><tr><td>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td><td>'ㅎ' 불규칙</td><td>'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가 오면,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도 '-애/-에'로 바뀐다</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다랗다 → 커다래, 커다래서• 파랗다 → 파래, 파래서• 노랗다 → 노래, 노래서</td></tr></table>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ㅎ' 불규칙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가 오면,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도 '-애/-에'로 바뀐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다랗다 → 커다래, 커다래서• 파랗다 → 파래, 파래서• 노랗다 → 노래, 노래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ㅎ' 불규칙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가 오면,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도 '-애/-에'로 바뀐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다랗다 → 커다라니, 커다랄, 커다라면, 커다라오.• 파랗다 → 파라니, 파랄, 파라면, 파라오.• 노랗다 → 노라니, 노랄, 노라면, 노라오.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ㅎ' 불규칙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가 오면,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도 '-애/-에'로 바뀐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다랗다 → 커다래, 커다래서• 파랗다 → 파래, 파래서• 노랗다 → 노래, 노래서							
p.53	<p>[30번 <보기> 띄어쓰기 수정]</p> <table><tr><td><보기></td></tr><tr><td>참고서, 학용품, 컴퓨터들을 그 아저씨께서 사 주셔서, 앞으로는 보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td></tr></table>	<보기>	참고서, 학용품, 컴퓨터들을 그 아저씨께서 사 주셔서, 앞으로는 보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table><tr><td><보기></td></tr><tr><td>참고서, 학용품, 컴퓨터 들을 그 아저씨께서 사 주셔서, 앞으로는 보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td></tr></table>	<보기>	참고서, 학용품, 컴퓨터 들을 그 아저씨께서 사 주셔서, 앞으로는 보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보기>										
참고서, 학용품, 컴퓨터들을 그 아저씨께서 사 주셔서, 앞으로는 보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보기>										
참고서, 학용품, 컴퓨터 들을 그 아저씨께서 사 주셔서, 앞으로는 보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p.54	<p>[33번 문제 해설 오타 수정]</p> <p>① [X] '가득히'는 '가득하다'의 어간 '가득'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붙은 부사입니다. ② [O] 형용사 '가볍다'의 어간 '가볍'에 부사형 어미 '-게'가 붙은 것이므로 품사는 형용사입니다.</p>	<p>① [X] '가득히'는 '가득하다'의 어근 '가득'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붙은 부사입니다. ② [O] 형용사 '가볍다'의 어간 '가볍-'에 부사형 어미 '-게'가 붙은 것이므로 품사는 형용사입니다.</p>								

p.55	<p>[35번 문제 해설 추가]</p> <p>㉔ [O] '웃음'은 '웃다'의 어간 '웃-'에 명사형 전성 어미 '-ㅁ'이 붙어 잠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로 서술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용언의 명사형입니다. 따라서 품사는 동사입니다.</p>	<p>㉔ [O] '웃음'은 '웃다'의 어간 '웃-'에 명사형 전성 어미 '-ㅁ'이 붙어 잠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로 서술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용언의 명사형입니다. 따라서 품사는 동사입니다.</p> <p>따라서 정답은 ④ ㉔, ㉔입니다.</p>
p.58	<p>[42번 문제 해설 추가]</p> <p>㉔ [O] 제시문의 단어들을 9품사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명사, 대명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모두 여섯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사로는 '겨울, 바다, 미지, 새, 해풍, 진실, 허무, 불, 물 이랑, 위'가 있고, 대명사는 '그대', 조사는 '에, 의, 은, 을, 도(보조사), 마저(보조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가, 보았지, 보고, 죽고, 했건만, 눈물져, 얼어, 버리고, 붙어'가 있고, 형용사는 '싶던, 없었네, 매운'이 있습니다. 관형사로는 '그'가 쓰였습니다.</p>	<p>㉔ [O] 제시문의 단어들을 9품사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명사, 대명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모두 여섯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사로는 '겨울, 바다, 미지, 새, 생각, 해풍, 진실, 허무, 불, 물 이랑, 위'가 있고, 대명사는 '그대', 조사는 '에, 의, 은, 을, 도(보조사), 마저(보조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가, 보았지, 보고, 죽고, 했건만, 눈물져, 얼어, 버리고, 붙어, 있었네'가 있고, 형용사는 '싶던, 없었네, 매운'이 있습니다. 관형사로는 '그'가 쓰였습니다.</p>
p.62	<p>[05번 문제 해설 추가]</p> <p>㉔ [X] '저녁내'는 '저녁(어근)'과 '그 기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뜻을 더하고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내'가 결합된 파생어입니다.</p> <p>㉔ [X] '끝내'는 '끝(어근)'과 '그때까지'의 뜻을 더하고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내'가 결합된 파생어입니다.</p> <p>㉔ [X] '막내'는 사전상으로는 단일어로 취급되지만, 어원상으로는 접두사 '막-'과 '내(어근)'가 결합된 파생어입니다.</p>	<p>㉔ [X] '저녁내'는 '저녁(어근)'과 '그 기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뜻을 더하고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내'가 결합된 파생어입니다. 발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적용되지 않고 비음화가 일어나서 [저녁내]라고 발음됩니다.</p> <p>㉔ [X] '끝내'는 '끝(어근)'과 '그때까지'의 뜻을 더하고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내'가 결합된 파생어입니다. 발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끝내]로 바뀐 후,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서 [끈내]라고 발음됩니다.</p> <p>㉔ [X] '막내'는 사전상으로는 단일어로 취급되지만, 어원상으로는 접두사 '막-'과 '내(어근)'가 결합된 파생어입니다. 발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적용되지 않고 비음화가 일어나서 [망내]라고 발음됩니다.</p>
p.63	<p>[06번 문제 해설 오타 수정]</p> <p>㉔ [O] '고추장'은 명사 '고추'와 '간장, 고추장, 된장'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명사 '장'이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놀이터'는 명사 '놀이'와 '자리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인 '터'가 붙어 형성된 합성어입니다. '손짓'은 명사 '손'과 '몸을 돌려 움직이는 동작'을 의미하는 명사 '짓'이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짓'을 명사로 보아 '손짓'을 합성어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론에 따라 '-짓'을 접사로 보아 '손짓'을 파생어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장군감'은 명사 '장군'과 '자격을 갖춘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 '감'이 결합한 합성어입니다.</p>	<p>㉔ [O] '고추장'은 명사 '고추'와 '간장, 고추장, 된장'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명사 '장'이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놀이터'는 명사 '놀이'와 '자리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인 '터'가 붙어 형성된 합성어입니다. '손짓'은 명사 '손'과 '몸을 돌려 움직이는 동작'을 의미하는 명사 '짓'이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짓'을 명사로 보아 '손짓'을 합성어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론에 따라 '-짓'을 접사로 보아 '손짓'을 파생어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장군감'은 명사 '장군'과 '자격을 갖춘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 '감'이 결합한 합성어입니다.</p>

p.64	[09번 문제 해설 수정] ② [X] '첫사랑'은 접두사 '첫-'과 명사 '사랑'이 결합한 파생어입니다.	② [X] '첫사랑'은 관형사 '첫'과 명사 '사랑'이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P.78	[06번 기특 + 표 수정-셀 합치기] <table><tr><td rowspan="2">부속 성분</td><td>관형어</td></tr><tr><td>부사어</td></tr></table>	부속 성분	관형어	부사어	<table><tr><td rowspan="2">부속 성분</td><td>관형어</td></tr><tr><td>부사어</td></tr></table>	부속 성분	관형어	부사어
부속 성분	관형어							
	부사어							
부속 성분	관형어							
	부사어							
p.79	[08번 기특 + 서술어의 자릿수 내용 수정] ㄹ. 대칭서술어는 주어나 목적어로 나타나는 대상이 둘이거나 주어 외에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예 • 영희와 엄마는 닮았다.('와'는 접속 조사로 쓰여 주어의 대상이 둘인 문형임) • 영희는 엄마와 닮았다.('와'는 부사격 조사로 쓰여 주어와 부사어가 있는 문형임)	ㄹ. 대칭서술어는 주어나 목적어로 나타나는 대상이 둘이거나 주어 외에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말하며, 문장에 따라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진다. 예 • 영희와 엄마는 닮았다.('와'는 접속 조사로 쓰여 주어의 대상이 둘인 문형임 → 한 자리 서술어) • 영희는 엄마와 닮았다.('와'는 부사격 조사로 쓰여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가 있는 문형임 → 두 자리 서술어)						
P.82	[03번 문제 해설 문체 수정] ① [X]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는 선후 관계가 있어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입니다.	① [X]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는 선후 관계가 있어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입니다.						
p.84	[09번 문제 해설 수정] ⑤ [X] '생겨도'와 '완성하겠습니다'가 이 문장의 서술어입니다. 서술어가 2개이므로 이 문장은 홑문장이 아니라 겹문장입니다. 또한 두 서술어는 종속적 연결 어미 '-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입니다.	⑤ [X] '생겨도'와 '완성하겠습니다'가 이 문장의 서술어입니다. 서술어가 2개이므로 이 문장은 홑문장이 아니라 겹문장입니다. 또한 두 서술어는 종속적 연결 어미 '-어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입니다.						

p.87	<p>[15번 문제 해설 수정]</p> <p>⑤ [X] '내포'란 안은문장을 말하고 '접속'이란 이어진 문장을 말합니다. 이 문장은 '내포'와 '접속'이 모두 사용된 문장입니다. '일기 예보를 듣다'와 '아침에 널었던 빨래를 얼른 건었다.'가 연결 어미 '-고'로 대등적으로 이어졌으므로 접속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아침에 널었던 빨래'는 '아침에 빨래를 널었다'가 관형절로 안긴문장입니다.</p>	<p>⑤ [X] '내포'란 안은문장을 말하고 '접속'이란 이어진 문장을 말합니다. 이 문장은 '내포'와 '접속'이 모두 사용된 문장입니다. '일기 예보를 듣다'와 '아침에 널었던 빨래를 얼른 건었다.'가 연결 어미 '-고'로 종속적으로 이어졌으므로 접속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아침에 널었던 빨래'는 '아침에 빨래를 널었다'가 관형절로 안긴문장입니다.</p>
p.90	<p>[02번 문제 해설 추가, 띄어쓰기 수정]</p> <p>① [O] '시키다'를 결합하여 타동사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하다'를 쓸 수 있는 말에 무리하게 '-시키다'를 결합하지 않습니다. ②, ③, ④에서 '주차하다', '해임하다', '단축하다'는 모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 데 ①에서 '승진하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 이므로 '-시키다'를 붙여서 타동사를 만들어 주어야 목적어인 '김 중위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p>	<p>① [O] '-시키다'는 명사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입니다. 따라서 '사동'의 뜻을 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키다'를 결합하여 타동사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하다'를 쓸 수 있는 말에 무리하게 '-시키다'를 결합하지 않습니다. ②, ③, ④에서 '주차하다', '해임하다', '단축하다'는 모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 데 ①에서 '승진하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이므로 '-시키다'를 붙여서 타동사를 만들어 주어야 목적어인 '김 중위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p>
p.93	<p>[05번 문제 해설 추가, 수정]</p> <p>① [X] ㉠에서는 조사 '께'와 서술어 '드리다'를 이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조사 '께서'와 서술어 '접수시키다'를 이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p>	<p>① [X] '문법 형태소(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를 말하며 조사, 어미 따위가 있습니다. ㉠에서는 조사 '께'와 서술어 '드리다'를 이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생략된 부사어 '할머니께'를 서술어 '드리다'를 이용하여 높이고 있을 뿐 객체를 높이는 문법 형태소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p>
p.97	<p>[12번 OX 및 정답 수정]</p> <p>② [X]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므로 선생님께 자기가 한 말을 '말씀'이라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뒷사람에게 그 사람을 높여 말이나, 인사, 부탁, 약속, 축하 따위를 할 때에는 '하다'가 아닌 '드리다'를 사용해야 하므로 '제가 한 말씀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린 말씀은요'라고 바꿔 써야 합니다.</p> <p>③ [O] 아버지의 친구는 '아저씨', '○○[지역] 아저씨', '○○[자녀] 아버지', '선생님' 또는 직함을 빌려 '과장님', '○ 과장님'으로 부르거나 가리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아들이 자신을 '과장님'이라고 호칭한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②</p>	<p>② [O]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므로 선생님께 자기가 한 말을 '말씀'이라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뒷사람에게 그 사람을 높여 말이나, 인사, 부탁, 약속, 축하 따위를 할 때에는 '하다'가 아닌 '드리다'를 사용해야 하므로 '제가 한 말씀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린 말씀은요'라고 바꿔 써야 합니다.</p> <p>③ [X] 아버지의 친구는 '아저씨', '○○[지역] 아저씨', '○○[자녀] 아버지', '선생님' 또는 직함을 빌려 '과장님', '○ 과장님'으로 부르거나 가리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아들이 자신을 '과장님'이라고 호칭한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③</p>



p.98	<p>[14번 문제 해설 수정]</p> <p>④ [X] 윗사람이나 남에게 말할 때는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 '저희 가게', '저희 회사' 등으로 표현하므로 '저희 사장님께서'라고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또 '듣기'의 주어는 '사장님'이므로 '들으시기'로 높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립국어원 <표준언어예절>에 따르면, '뱃길을 청한 이유는 고견을 듣기 위함'과 같이 용언이 여러 개 나타날 경우 마지막 용언에만 높임 선어말 어미 '-사-'를 써서 '뱃길을 청한 이유는 고견을 들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p>	<p>④ [X] '우리'를 '저희'로, '께서'를 '이'로, '청한, 듣기'를 '청하신, 들으시기'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화자가 자신과 사장님이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고자 대명사를 쓰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상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낮춤말인 '저희'를 쓰는 것이고, 사회에서는 압존법을 쓰지 않음에 따라 '청하신, 들으시기'로 높여 쓰는 것이며, 청자를 고려하여 '께서'를 '이'로 바꾸어 쓰는 것입니다.</p>
p.100	<p>[20번 문제 해설 띄어쓰기 수정]</p> <p>③ [X] '오시랍니다'는 '오시라고 합니다'가 줄어든 말입니다. 청자인 '과장님'뿐만 아니라, '하다'의 주체인 '부장님' 역시 높여야 하므로, '오시라고 하십니다(오시라 십니다)'로 고쳐 써야 합니다.</p>	<p>③ [X] '오시랍니다'는 '오시라고 합니다'가 줄어든 말입니다. 청자인 '과장님'뿐만 아니라, '하다'의 주체인 '부장님' 역시 높여야 하므로, '오시라고 하십니다(오시라십니다)'로 고쳐 써야 합니다.</p>
p.102	<p>[03번 문제 해설 예시 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도 반의어: 알다 - 모르다, 빠르다 - 느리다, 높다 - 낮다, 밝다 - 어둡다, 좋다 - 싫다, 깨끗하다 - 더럽다 • 방향 반의어: 가다 - 오다, 아래 - 위, 부모 - 자식, 주다 - 받다 • 상보 반의어: 남성 - 여성, 살다 - 죽다, 참 - 거짓, 있다 - 없다, 맞다 - 틀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도 반의어: 빠르다 - 느리다, 높다 - 낮다, 밝다 - 어둡다, 좋다 - 싫다, 깨끗하다 - 더럽다 • 방향 반의어: 가다 - 오다, 아래 - 위, 부모 - 자식, 주다 - 받다 • 상보 반의어: 남성 - 여성, 알다 - 모르다, 살다 - 죽다, 참 - 거짓, 있다 - 없다, 맞다 - 틀리다
p.106	<p>[13번 문제 해설 수정]</p> <p>② [X] 선지의 '놀다'는 '가동을 중지하다, 회사나 업체가 휴무로 쉬다'의 의미입니다.</p>	<p>② [X] 선지의 '놀다'는 '어떤 일을 하다가 일정한 동안을 쉬다'의 의미입니다.</p>
p.104	<p>[09번 출제 영역 수정]</p> <p>출제 영역 동음이의어와 다의어</p>	<p>출제 영역 품사의 통용</p>
p.108	<p>[18번 출제 영역 수정]</p> <p>출제 영역 단어의 문맥적 의미</p>	<p>출제 영역 국어의 9품사</p>

p.117	<p>[02번 문제 해설 내용 추가]</p> <p>A: '길'의 뜻이 실제 'road'를 뜻하는지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way'인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어휘적 중의성에 해당하는 예입니다.</p> <p>B: '모두'라는 단어가 진짜 학생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안왔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부는 왔는데 전원이 다 참석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해석이 나뉠 수 있으므로 작용역 중의성(scope ambiguity)에 해당합니다.</p> <p>C: '보고 싶은'의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영수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해석과 '영수가 친구들이 보고 싶은데, 그 수가 많다'라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조적 중의성에 해당합니다.</p> <p>D: '차'가 'car'인지 'tea'인지 모호하므로 어휘적 중의성에 해당합니다.</p> <p>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p>	<p>A: '길'의 뜻이 실제 'road'를 뜻하는지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way'인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① 어휘적 중의성에 해당하는 예입니다.</p> <p>B: '모두'라는 단어가 진짜 학생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안왔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부는 왔는데 전원이 다 참석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해석이 나뉠 수 있으므로 ③ 영향권 중의성 또는 작용역 중의성(scope ambiguity)에 해당합니다.</p> <p>C: '보고 싶은'의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영수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해석과 '영수가 친구들이 보고 싶은데, 그 수가 많다'라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④ 구조적 중의성에 해당합니다.</p> <p>D: '차'가 'car'인지 'tea'인지 모호하므로 ① 어휘적 중의성에 해당합니다.</p> <p>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p>																										
p.124	<p>[02번 기특 + 훈민정음 제자 원리/창제의 원리 표 오타 수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오음(五音)</th><th>기본자</th><th>상형</th></tr> </thead> <tbody> <tr> <td>아음(牙音)</td><td rowspan="2">ㄱ</td><td>象舌根閉喉之形 (상설근폐후지형)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td></tr> <tr> <td>어금니 소리</td><td></td></tr> <tr> <td>설음(舌音)</td><td rowspan="2">ㄴ</td><td>象舌附上腭之形 (상설부상악지형) 혀가 윗잇몸에 닿은 모양</td></tr> <tr> <td>혀 소리</td><td></td></tr> </tbody> </table>	오음(五音)	기본자	상형	아음(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상설근폐후지형)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어금니 소리		설음(舌音)	ㄴ	象舌附上腭之形 (상설부상악지형) 혀가 윗잇몸에 닿은 모양	혀 소리		<table border="1"> <thead> <tr> <th>오음(五音)</th><th>기본자</th><th>상형</th></tr> </thead> <tbody> <tr> <td>아음(牙音)</td><td rowspan="2">ㄱ</td><td>象舌根閉喉之形 (상설근폐후지형)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td></tr> <tr> <td>어금니소리</td><td></td></tr> <tr> <td>설음(舌音)</td><td rowspan="2">ㄴ</td><td>象舌附上腭之形 (상설부상악지형) 혀가 윗잇몸에 닿은 모양</td></tr> <tr> <td>혀소리</td><td></td></tr> </tbody> </table>	오음(五音)	기본자	상형	아음(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상설근폐후지형)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어금니소리		설음(舌音)	ㄴ	象舌附上腭之形 (상설부상악지형) 혀가 윗잇몸에 닿은 모양	혀소리	
오음(五音)	기본자	상형																										
아음(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상설근폐후지형)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어금니 소리																												
설음(舌音)	ㄴ	象舌附上腭之形 (상설부상악지형) 혀가 윗잇몸에 닿은 모양																										
혀 소리																												
오음(五音)	기본자	상형																										
아음(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상설근폐후지형)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어금니소리																												
설음(舌音)	ㄴ	象舌附上腭之形 (상설부상악지형) 혀가 윗잇몸에 닿은 모양																										
혀소리																												
p.127	<p>[11번 문제 한자 수정]</p> <div> 나. 'ㅅ'은 혀가 윗잇몸에 닿은 모양을 본뜬 (象舌附上腭之形). </div>	<div> 나. 'ㅅ'은 혀가 윗잇몸에 닿은 모양을 본뜬 (象舌附上腭之形). </div>																										
p.128	<p>[11번 문제 해설 Tip]</p> <p>'상설부상악지형(象舌附上腭之形)'에서는 '혀 설(舌)'과 '위 상(上)' '잇몸 악(齶)'을 암기해 둡니다.</p>	<p>'상설부상악지형(象舌附上腭之形)'에서는 '혀 설(舌)'과 '위 상(上)' '잇몸 악(腭)'을 암기해 둡니다.</p>																										
p.131	<p>[01번 문제 해설 띄어쓰기 수정]</p> <p>④ [O] 모음 조화는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뒤의 모음이 앞 모음의 영향으로 그와 가깝게 나거나 같은 소리로 되는 언어 현상을 말하며 중세 국어에서 지켜졌습니다.</p>	<p>④ [O] 모음 조화는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뒤의 모음이 앞 모음의 영향으로 그와 가깝게 나거나 같은 소리로 되는 언어 현상을 말하며 중세 국어에서 지켜졌습니다.</p>																										
p.137	<p>[02번 출제 영역 수정]</p> <p>출제 영역 국어의 역사</p>	<p>출제 영역 훈민정음 표기법</p>																										
p.140	<p>[04번 선지 내용 추가]</p> <p>⑤ 웃놀이는 말을 잘 쓰는</p>	<p>⑤ 웃놀이는 말을 잘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p>																										

p.144	<p>[01번 문제 해설 오타 수정]</p> <p>① [X] '저, 쩌, 처'로 적는 경우는 '지어, 찌어, 치어'를 줄여 쓴 것인데, 이때에 각각 [저], [찌], [처]로 발음합니다. 따라서 '다쳐'는 [다쳐]가 표준 발음입니다.</p>	<p>① [X] '저, 쩌, 처'로 적는 경우는 '지어, 찌어, 치어'를 줄여 쓴 것인데, 이때에 각각 [저], [찌], [처]로 발음합니다. 따라서 '다쳐'는 [다쳐]가 표준 발음입니다.</p>
p.147	<p>[02번 문제 해설 문체 수정]</p> <p>④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라 겹받침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합니다. 단순화된 자음 'ㄹ'에 의해 뒤에 오는 어미 '-네'의 자음 'ㄴ'은 「표준 발음법」 제20항에 따라 'ㄹ'로 동화되어 [레]로 발음된다. 따라서 '짹네요'는 [짹레요]와 같이 발음합니다.</p>	<p>④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라 겹받침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합니다. 단순화된 자음 'ㄹ'에 의해 뒤에 오는 어미 '-네'의 자음 'ㄴ'은 「표준 발음법」 제20항에 따라 'ㄹ'로 동화되어 [레]로 발음됩니다. 따라서 '짹네요'는 [짹레요]와 같이 발음합니다.</p>
p.148	<p>[05번 문제 해설 수정, 삭제 - 2017년 12월 표준국어대사전 수정 내용 반영]</p> <p>발음이 잘못된 것은 '폭발[폭팍]', '발이랑[바디랑]', '반창고[반창꼬]', '인기척[인기척]', '밧고[밧꼬]'로 총 5개이므로 정답은 ④입니다.</p> <p>[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은 '된소리되기'가 적용될 수 있는 발음 환경입니다.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폭팍]과 같이 발음됩니다. - '발이랑'은 '발-이랑'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합성어이므로 'ㄴ' 첨가가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발'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반]으로 발음됩니다. 따라서 [반니랑]으로 발음되는데, 이후 'ㄴ'의 영향으로 비음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반니랑]으로 발음됩니다. - '반창고'는 '반창-고'로 분석할 수 있는데 된소리되기 일어날 환경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창고]로 발음해야 합니다. - '인기척'은 [인기척]으로 발음됩니다.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인기척'으로 분석되며 '사람의 기척'이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사이시옷의 기능을 고려하여 된소리로 발음해야 합니다. - '밧고'는 [밧:꼬]로 발음됩니다. 일반적으로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되지만, '밧-'은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됩니다. <p>[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웃 입다'는 'ㄴ' 첨가가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합니다.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합니다. '웃 입다'를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입' 자리에 'ㄴ'이 첨가됩니다. 한편 '웃'은 대표음인 [온]으로 발음되어 [온닙따]로 발음이 되고 최종적으로 비음화 과정을 거쳐 [온닙따]로 발음됩니다. 	<p>발음이 잘못된 것은 '폭발[폭팍]', '발이랑[바디랑]', '반창고[반창꼬]', '밧고[밧꼬]'로 총 4개이므로 정답은 ③입니다.</p> <p>[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은 '된소리되기'가 적용될 수 있는 발음 환경입니다.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ㄷ, ㄷ, ㄷ, ㄷ, ㄷ)'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폭팍]과 같이 발음됩니다. - '발이랑'은 '발-이랑'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합성어이므로 'ㄴ' 첨가가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발'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반]으로 발음됩니다. 따라서 [반니랑]으로 발음되는데, 이후 'ㄴ'의 영향으로 비음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반니랑]으로 발음됩니다. - '반창고'는 '반창-고'로 분석할 수 있는데 된소리되기 일어날 환경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창고]로 발음해야 합니다. - '밧고'는 [밧:꼬]로 발음됩니다. 일반적으로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되지만, '밧-'은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됩니다. <p>[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웃 입다'는 'ㄴ' 첨가가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합니다.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합니다. '웃 입다'를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입' 자리에 'ㄴ'이 첨가됩니다. 한편 '웃'은 대표음인 [온]으로 발음되어 [온닙따]로 발음이 되고 최종적으로 비음화 과정을 거쳐 [온닙따]로 발음됩니다.

	<p>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합니다.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합니다. ‘웃 입다’를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입’ 자리에 ‘ㄴ’이 첨가됩니다. 한편 ‘웃’은 대표음인 [온]으로 발음되어 [온닙따]로 발음이 되고 최종적으로 비음화 과정을 거쳐 [온닙따]로 발음됩니다.</p> <p>– 「표준 발음법」 제16항에서는 한글 자모의 발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피읍’에는 [피으베]로 발음합니다.</p> <p>– ‘설익다’는 ‘설-익다’로 분석할 수 있는 파생어입니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이때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유음화에 따라 [ㄹ]로 발음합니다. 따라서 [설릭따]로 발음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④</p>	<p>– 「표준 발음법」 제16항에서는 한글 자모의 발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피읍’에는 [피으베]로 발음합니다.</p> <p>– ‘설익다’는 ‘설-익다’로 분석할 수 있는 파생어입니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이때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유음화에 따라 [ㄹ]로 발음합니다. 따라서 [설릭따]로 발음됩니다.</p> <p>– ‘인기척’은 [인끼척/인기척]으로 발음됩니다. 참고로 2017년 3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으로 ‘불법[불법/불뻘], 관건[관건/관건], 교과[교:과/교:과], 효과[효:과/효:과], 안간힘[안간힘/안간힘], 인기척[인끼척/인기척]’으로 발음이 수정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③</p>
p.156	<p>[02번 문제 해설 수정 – 2017년 12월 표준국어대사전 수정 내용 반영]</p> <p>③ [O] ‘효과’는 사잇소리 현상의 예외로 ‘과’를 된소리 [파]로 잘못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효과’는 [효:과]와 같이 장음으로 발음됩니다.</p>	<p>③ [O] ‘효과’는 [효:과/효:과]로 발음됩니다.</p>
p.157	<p>[03번 문제 해설 수정 – 2017년 12월 표준국어대사전 수정 내용 반영]</p> <p>① [O] ‘불법(不法)’은 뒤의 ‘법’을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으므로 [불뻘]이 맞습니다.</p>	<p>① [O] ‘불법(不法)’은 [불뻘/불뻘]으로 발음됩니다.</p>
p.157	<p>[05번 문제 해설 삭제 – 2017년 12월 표준국어대사전 수정 내용 반영]</p> <p>④ [X] ‘유리잔’은 [유리잔]으로 발음합니다. 사잇소리 현상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예외 단어에는 ‘유리잔[유리잔], 불법[불뻘], 관건[관건] 등이 있습니다.</p>	<p>④ [X] ‘유리잔’은 [유리잔]으로 발음합니다. 사잇소리 현상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
p.159	<p>[07번 기특 + 된소리되기 예시 삭제, 추가]</p> <p>8. 다음과 같은 단어는 ‘된소리되기’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p> <p>예 관건[관건O, 관건X], 교과서[교과서O, 교파서X]</p>	<p>8. 다음과 같은 단어는 ‘된소리되기’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p> <p>예 유리잔[유리잔O, 유리잔X], 불량난[불장난O, 불짱난X], 반창고[반창고O, 반창고X], 등기[등기O, 등끼X], 간단하다[簡單하다]간단하다O, 간판하다X]</p>

p.159	<p>[01번 문제 해설 수정]</p> <p>② [X] '직행열차'는 '직행'과 '열차'가 결합된 합성어로,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ㄷ'이기 때문에 'ㄴ' 첨가가 일어납니다.</p>	<p>② [X] '직행열차'는 '직행'과 '열차'가 결합된 합성어로,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ㄷ'이기 때문에 'ㄴ' 첨가가 일어납니다.</p>						
p.164	<p>[05번 문제 해설 삭제]</p> <p>② [X] 눈꼽(X)/눈곱(O), 품새(X)/품새(O)</p>	<p>② [X] 눈꼽(X)/눈곱(O)</p>						
p.170	<p>[23번 문제 밑줄 수정]</p> <p>ㄱ. 길형이는 뱀을 발견하고 <u>섬</u> 뿔 놀랐다.</p>	<p>ㄱ. 길형이는 뱀을 발견하고 <u>섬</u> 뿔 놀랐다.</p>						
p.173	<p>[32번 기특 + 오타 수정]</p> <table border="1"> <tr> <td>-구려</td> <td>-구료</td> <td>㉞ 멀치볶음이 남았으면 더 주구려. (주구려X)</td> </tr> </table>	-구려	-구료	㉞ 멀치볶음이 남았으면 더 주구려. (주구려 X)	<table border="1"> <tr> <td>-구려</td> <td>-구료</td> <td>㉞ 멀치볶음이 남았으면 더 주구려. (주구료X)</td> </tr> </table>	-구려	-구료	㉞ 멀치볶음이 남았으면 더 주구려. (주구료 X)
-구려	-구료	㉞ 멀치볶음이 남았으면 더 주구려. (주구려 X)						
-구려	-구료	㉞ 멀치볶음이 남았으면 더 주구려. (주구료 X)						
p.177	<p>[44번 문제 해설 수정]</p> <p>⑤ [X] 가자미식해[X]: 가자미식해가 옳은 표기입니다. 텃새[X]: 텃새가 옳은 표기입니다.</p>	<p>⑤ [X] 가자미식해[X]: 가자미식해가 옳은 표기입니다. 텃새[X]: 출제 의도에 따라, '터'를 빌려 쓰고 내는 새와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특권의 의미를 가리킬 때는 '텃새'가 맞습니다. 그러나 '철'을 따라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고 거의 한 지방에서만 사는 새를 의미하는 단어로 '텃새'가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p>						
p.181	<p>[04번 해설 띄어쓰기 수정]</p> <p>④ [X] 단어의 첫 음절 초성에만 두음 법칙이 적용되므로, 단어의 둘째 음절인 '룽'의 초성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쌍룽'으로 적어야 합니다.</p>	<p>④ [X] 단어의 첫 음절 초성에만 두음 법칙이 적용되므로, 단어의 둘째 음절인 '룽'의 초성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쌍룽'으로 적어야 합니다.</p>						
p.184	<p>[05번 문제 해설 정답 이동]</p> <p>㉞ [X]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으므로 '아래총'이 적절합니다. 정답 ①</p> <p>㉞ [X] 접미사 앞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으므로 '해남'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이 옳은 표기이지만 선지에 3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없으므로 ① ㉠㉡이 정답입니다.</p>	<p>㉞ [X]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으므로 '아래총'이 적절합니다.</p> <p>㉞ [X] 접미사 앞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으므로 '해남'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이 옳은 표기이지만 선지에 3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없으므로 ① ㉠㉡이 정답입니다. 정답 ①</p>						

p.191	<p>[19번 OX 수정]</p> <p>③ [X] '이르다'는 '무엇이라고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르' 불규칙 동사입니다. 어간의 끝 음절 '르'가 '르'로 줄고, 어미 '-아/-어'가 '-라/-려'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즉, '이르- + -어 → 일러'입니다. 참고로,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라는 뜻으로 쓰일 경우에 '이르다'는 '이르러'로 활용하는 '러' 불규칙 동사입니다.</p> <p>④ [X] '들르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들르- + -었다'가 → '들렀다'가로 활용합니다.</p>	<p>③ [O] '이르다'는 '무엇이라고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르' 불규칙 동사입니다. 어간의 끝 음절 '르'가 '르'로 줄고, 어미 '-아/-어'가 '-라/-려'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즉, '이르- + -어 → 일러'입니다. 참고로,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라는 뜻으로 쓰일 경우에 '이르다'는 '이르러'로 활용하는 '러' 불규칙 동사입니다.</p> <p>④ [O] '들르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들르- + -었다'가 → '들렀다'가로 활용합니다.</p>				
p.198	<p>[01번 문제 해설 수정]</p> <p>③ [O] '가까워진다'는 '가깝게 되다'라는 뜻을 지닌, 용언의 기본형 '가까워지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ㄴ-'이 합쳐진 형태입니다.</p>	<p>③ [O] '가까워진다'는 '어떤 수치에 근접하다.'라는 뜻을 지닌 '가깝다'에 보조 용언 '지다'가 '-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가깝-+-어지다'가 되고, 여기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ㄴ-'이 합쳐진 형태입니다.</p>				
p.202	<p>[07번 문제 해설 OX 표시]</p> <p>① - 일일이[O]: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p> <p>② - 꼼꼼이[X]: 일반적으로 용언이 '-하다'로 끝 -----</p> <p>③ - 상당히[O]: 일반적으로 용언이 '-하다'로 끝 -----</p> <p>④ - 도저히[O]: 일반적으로 용언이 '-하다'로 끝 -----</p> <p>⑤ - 쏙쏙히[O]: 일반적으로 용언이 '-하다'로 끝 -----</p>	<p>① [O] - 일일이[O]: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p> <p>② [X] - 꼼꼼이[X]: 일반적으로 용언이 '-하다'로 끝 -----</p> <p>③ [X] - 상당히[O]: 일반적으로 용언이 '-하다'로 끝 -----</p> <p>④ [X] - 도저히[O]: 일반적으로 용언이 '-하다'로 끝 -----</p> <p>⑤ [X] - 쏙쏙히[O]: 일반적으로 용언이 '-하다'로 끝 -----</p>				
p.208	<p>[21번 문제 해설 OX 표시]</p> <p>①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기회를 이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빌다'가 아니라 '빌리다'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p>	<p>① [X]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기회를 이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빌다'가 아니라 '빌리다'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p>				
P.210	<p>[27번 기특 + 오타수정]</p> <p> [기특 +] '개배/계제', '성패/승패', '유래/유례/전례'의 의미</p>	<p> [기재 +] '개재/계제', '성패/승패', '유래/유례/전례'의 의미</p>				
p.215	<p>[38번 기특 + 심표 추가]</p> <table><tr><td>'ㄴ' 받침이나 모음 + 울/열</td><td>전울감, 선울, 운울, 이훈울, 백분울, 비울 분열, 균열, 사분오열(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짐)</td></tr></table>	'ㄴ' 받침이나 모음 + 울/열	전울감, 선울, 운울, 이훈울, 백분울, 비울 분열 , 균열, 사분오열(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짐)	<table><tr><td>'ㄴ' 받침이나 모음 + 울/열</td><td>전울감, 선울, 운울, 이훈울, 백분울, 비울, 분열, 균열, 사분오열(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짐)</td></tr></table>	'ㄴ' 받침이나 모음 + 울/열	전울감, 선울, 운울, 이훈울, 백분울, 비울, 분열 , 균열, 사분오열(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짐)
'ㄴ' 받침이나 모음 + 울/열	전울감, 선울, 운울, 이훈울, 백분울, 비울 분열 , 균열, 사분오열(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짐)					
'ㄴ' 받침이나 모음 + 울/열	전울감, 선울, 운울, 이훈울, 백분울, 비울, 분열 , 균열, 사분오열(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짐)					

p.224	<p>[02번 문제 해설 띄어쓰기 수정]</p> <p>① [O] '한밤중'은 '깊은 밤'을 뜻하는 한 단어로,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부사격 조사 '에'역시 앞말에 붙여 씁니다.</p>	<p>① [O] '한밤중'은 '깊은 밤'을 뜻하는 한 단어로,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부사격 조사 '에' 역시 앞말에 붙여 씁니다.</p>
p.226	<p>[08번 문제 해설 수정]</p> <p>④ [X] '-는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로 붙여 쓴 것은 바른 표기입니다.</p>	<p>④ [X] '-는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p>
p.226	<p>[09번 띄어쓰기 수정]</p> <p>② [X] '집채만 하다'에서 '만'은 체언 뒤에 붙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한편, '하다'의 활용형인 '한'은 앞말과 띄어 써야하므로 '집채만'과 '한'이 붙어 써야 합니다.</p>	<p>② [X] '집채만 하다'에서 '만'은 체언 뒤에 붙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한편, '하다'의 활용형인 '한'은 앞말과 띄어 써야하므로 '집채만'과 '한'이 붙어 써야 합니다.</p>
p.230	<p>[19번 문제 해설 수정]</p> <p>② [X] '있을 지라도'의 '-을지'는 어미이므로 '있을지라도'와 같이 붙여 써야 합니다.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의존 명사로 씁니다.</p>	<p>② [X] '있을 지라도'의 '-을지라도'는 어미이므로 '있을지라도'와 같이 붙여 써야 합니다.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의존 명사로 씁니다.</p>
p.232	<p>[25번 문제 해설 OX 수정]</p> <p>④ [X] 용언의 관형형의 수식을 받는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옳지만 제시문의 설명과 무관합니다.</p> <p>⑤ [X] '등'은 열거의 뜻을 표시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옳지만 제시문의 설명과 무관합니다.</p>	<p>④ [O] 용언의 관형형의 수식을 받는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옳지만 제시문의 설명과 무관합니다.</p> <p>⑤ [O] '등'은 열거의 뜻을 표시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옳지만 제시문의 설명과 무관합니다.</p>
p.246	<p>[05번 선지 띄어쓰기 수정]</p> <p>① 나는 그의 말의 참:거짓 을 판단할 수 없었다.</p>	<p>① 나는 그의 말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었다.</p>
p.246	<p>[05번 문제 해설 수정]</p> <p>① [X] 쌍점(:)은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회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시와 분·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의존 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각각 쓸 수가 있고 선택항과 같이 의미가 대립되는 말의 가운데에는 쓸 수 없습니다.</p>	<p>① [X] 쌍점(:)은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회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시와 분·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의존 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각각 쓸 수 있습니다. 선택항과 같이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는 가운데점(•)을 사용해야 합니다.</p>
p.249	<p>[01번 문제 해설 수정]</p> <p>④ [X] 받침 'ㅂ'이 'ㅎ'과 결합하여 집현전은 [지편전]이라고 발음합니다. 다만, 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으므로 'Jiphyoenjeon'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p>	<p>④ [X] 받침 'ㅂ'이 'ㅎ'과 결합하여 집현전은 [지편전]이라고 발음합니다. 다만, 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으므로 'Jiphyeonjeon'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p>

p.250	<p>[04번 문제 해설 심표 추가]</p> <p>② [X] '종로구'는 [종노구]로 발음됩니다. 따라서 'Jongno-gu'입니다. '도·시·군·구·읍·면·리·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길 이름인 '가', '길', '로'는 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 gil, ro'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습니다.</p>	<p>② [X] '종로구'는 [종노구]로 발음됩니다. 따라서 'Jongno-gu'입니다. '도·시·군·구·읍·면·리·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길 이름인 '가', '길', '로'는 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 gil, ro'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습니다.</p>
p.251	<p>[07번 문제 해설 수정]</p> <p>③ [O] '백록담'은 'ㄹ'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와 바뀐 'ㄴ'의 영향으로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 과정을 거쳐 [뱅녹땀]으로 발음됩니다. 다만 「로마자 표기법」에서 된소리되기는 표기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뱅녹담]을 로마자로 옮긴 'Baengnokdam'이 맞는 로마자 표기입니다.</p>	<p>③ [O] '백록담'은 'ㄹ'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와 바뀐 'ㄴ'의 영향으로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 과정을 거쳐 [뱅녹땀]으로 발음됩니다. 다만 「로마자 표기법」에서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Baengnokdam'이 맞는 표기입니다.</p>
p.256	<p>[02번 문제 해설 띄어쓰기 수정]</p> <p>ㄹ: 챔피언[X] 챔피언[O]</p>	<p>ㄹ: 챔피언[X] 챔피언[O]</p>
p.260	<p>[14번 문제 오타 수정]</p> <p>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단어끼리 짝지어진 것은?</p>	<p>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단어끼리 짝지어진 것은?</p>
p.264	<p>[25번 문제 해설 수정]</p> <p>③ [X] '할리우드(hollywood)', '앙코르(encore)'가 바른 표기입니다.</p> <p>④ [X] '난센스(nonsense)', '리더십(leadership)'이 바른 표기입니다.</p> <p>⑤ [X] '내비게이션(navigation)', '티브이(텔레비전)'가 맞는 표기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발음이 [næ vɛɡɛiʃən]로 나므로 [næ]를 '내'로 적은 것입니다. '디지털(digital)'은 '디지털'로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p>	<p>③ [X] '할리우드(hollywood)', '앙코르(encore)'가 바른 표기입니다.</p> <p>④ [X] '난센스(nonsense)', '리더십(leadership)'이 바른 표기입니다.</p> <p>⑤ [X] '내비게이션(navigation)', '티브이(텔레비전)'가 맞는 표기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발음이 [næ vɛɡɛiʃən]로 나므로 [næ]를 '내'로 적은 것입니다. '디지털(digital)'은 '디지털'로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p>
p.267	<p>[34번 선지 번호 수정]</p> <p>④ [O]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맞게 표기된 것입니다.</p>	<p>⑤ [O]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맞게 표기된 것입니다.</p>
p.271	<p>[04번 선지 수정]</p> <p>③ 국지적(局地的)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p>	<p>③ 국지적(偏地的)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p>
p.271	<p>[04번 출제 영역 수정]</p> <p>출제 영역 단어의 올바른 선택</p>	<p>출제 영역 표기에 주의해야 할 한자</p>
p.271	<p>[04번 문제 해설 수정]</p> <p>③ [X] '국지적(局地的)'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것'을 의미하므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와 어울리지 않습니다.</p>	<p>③ [X]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것'을 의미하는 '국지적(局地的)'은 '偏(구부릴 국)이 아닌 局(판 국)'을 씁니다. '국지적(偏地的)'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p>

p.276	<p>[01번 문제 해설 수정]</p> <p>② [X]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번역 투의 문장입니다. '불만이 있었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p>	<p>② [X] '그녀에게서'를 '그녀에게'로 고쳐 써야 합니다. '에게서'는 유정 명사 뒤에서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서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이다.', '이 책이 그에게서 받은 것이다.'와 같이 쓰입니다. 따라서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면서 어떤 물건의 소속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 '에게'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p>
p.277	<p>[04번 문제 해설 수정]</p> <p>③ [X] '로써'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 '로써'를 써야 합니다.</p>	<p>③ [X] '지금으로서는'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로써'는 '고향을 떠난 지 올해로써 20년이 된다'와 같이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냅니다. 또한 '로써'는 조사 '로'보다 뜻이 분명하므로 들어갈 자리에 '로'를 넣어서 자연스럽다면 '로써'로 쓸 수 있습니다. '로써'는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나타내므로 '지금으로서는'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립국어원 답변 참조]</p>
p.294	<p>[02번 문제 해설 수정]</p> <p>④ [X] 첫째 문장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영어식 표현인 'it is not too much to~'에서 온 말입니다. '이런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정도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둘째 문장의 '학교 문제에 대한~'에서 '~에 대한'은 번역 투 표현이므로, '~에'로 쓸 수 있으면 '~에'로 고쳐야 합니다. '오늘 조회 시간에는 학교 문제에~' 정도로 고치면 좋습니다.</p>	<p>④ [X] 첫째 문장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영어식 표현인 'it is not too much to~'에서 온 말입니다. '이런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정도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둘째 문장의 사물 주어를 사람 주어로 바꿔 써야 합니다. 우리말에서 영어식 물주구문은 문법적으로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솔직한 해명' 대신 '교장 선생님'을 주어로 하여 '오늘 조회 시간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하셨다.' 정도로 고치면 좋습니다.</p>
p.296	<p>[01번 기특 + 내용 수정]</p> <p>5. 항목 기호는 '1. -가, -가)-(가)'의 순서로 쓴다.</p>	<p>5. 항목 기호는 '1. -가, -1)-(가)-(1)-(가)'의 순서로 쓴다.</p>
p.298	<p>[03번 문제 해설 수정]</p> <p>③ [X] 과도한 높임 표현입니다. '이쪽에 잠깐 앉아 계세요.' 정도로 고쳐야 합니다.</p>	<p>③ [X] '-르게'는 어떤 행동에 대한 화자의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서 '다시 연락할게.', '오늘은 나 먼저 갈게.'와 같이 쓰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말할 때는 '이쪽에 잠깐 앉아 계세요.' 정도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p>
p.300	<p>[02번 문제 해설 중복 문구 삭제]</p> <p>① [O] 전화를 걸 때 가는 사람은 자기를 밝히고 인사한 뒤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전화 예절입니다.</p>	<p>① [O] 전화를 걸 때 가는 사람은 인사한 뒤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전화 예절입니다.</p>

p.304	<p>[01번 기특 + 내용 추가]</p> <table> <tr> <td>거리</td><td>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td><td>오이 세 거리. (150개)</td></tr> </table>	거리	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	오이 세 거리. (150개)	<table> <tr> <td>거리</td><td>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50개.</td><td>오이 세 거리. (150개)</td></tr> </table>	거리	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50개 .	오이 세 거리. (150개)
거리	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	오이 세 거리. (150개)						
거리	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50개 .	오이 세 거리. (150개)						
p.312	<p>[22번 문제 해설 한자 음훈 수정]</p> <p>① [O] '豫斷(미리 예, 짧을 단)'은 '미리 내린 판단'을 의미하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확실하지 않은 것을 성급하게 미리 하는 짐작'인 '지레짐작'으로 바꾸어 쓴 것은 적절합니다.</p>	<p>① [O] '豫斷(미리 예, 꿇을 단)'은 '미리 내린 판단'을 의미하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확실하지 않은 것을 성급하게 미리 하는 짐작'인 '지레짐작'으로 바꾸어 쓴 것은 적절합니다.</p>						
p.320	<p>[42번 직렬 표시 수정]</p> <p>[16 지방직 7]</p>	<p>[16 지방 7]</p>						
p.329	<p>[04번 문제 해설 수정]</p> <p>② [X] '재미난 골에 범 난다'는 '즐거운 일을 찾아 게속하다 보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p>	<p>② [X] '재미난 골에 범 난다'는 '편하고 재미있다고 위험한 일이나 나쁜 일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큰 화를 당하게 됨(= 오래 앉으면 새도 살을 맞는다)', '지나치게 재미있으면 그 끝에 가서는 좋지 않은 일이 생김'을 이르는 말입니다.</p>						
p.350	<p>[16번 문제 해설 한자 음훈 수정]</p> <p>④ [X] 櫛風沐雨(빗 즐, 바람 풍, 머리 감을 목, 비 우)는 '머리털을 바람으로 빗질하고 몸은 빗물로 목욕한다'는 뜻으로, 오랜 세월을 객지에서 방랑하며 온갖 고생을 다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라)의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p>	<p>④ [X] 櫛風沐雨(빗 즐, 바람 풍, 머리 감을 목, 비 우)는 '머리털을 바람으로 빗질하고 몸은 빗물로 목욕한다'는 뜻으로, 오랜 세월을 객지에서 방랑하며 온갖 고생을 다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라)의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p>						
p.362	<p>[45번 제시문 끊어진 밑줄 연결]</p> <p>정든 <u>님</u> <u>그리워</u> <u>잠 못 들어</u> 하는</p>	<p>정든 <u>님</u> <u>그리워</u> <u>잠 못 들어</u> 하는</p>						
p.377	<p>[13번 문제 물음표 추가]</p> <p>다음 글의 밑줄 친 한자어의 독음을 옳게 연결한 것은</p>	<p>다음 글의 밑줄 친 한자어의 독음을 옳게 연결한 것은?</p>						
p.382	<p>[28번 문제 해설 오타 수정]</p> <p>③ [O] '機密(틀 기, 뽁뽁할 밀)'은 '외부에 드러내서는 안 될 중요한 비밀'을 뜻합니다 '流出(흐를 류, 날 출)'은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러 내보냄'을 뜻합니다</p>	<p>③ [O] '機密(틀 기, 뽁뽁할 밀)'은 '외부에 드러내서는 안 될 중요한 비밀'을 뜻합니다 '流出(흐를 류, 날 출)'은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러 내보냄'을 뜻합니다</p>						
p.385	<p>[34번 문제 해설 작은따옴표 추가]</p> <p>③ [X] '異狀(다를 이, 형상 상)'은 '평소와는 다른 상태'를 뜻하며, 근무 중 이상 무같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문맥상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식과는 달리 별나가거나 색다르다'를 뜻하는 '異常(다를 이, 떤떤할 상)'으로 적어야 합니다.</p>	<p>③ [X] '異狀(다를 이, 형상 상)'은 '평소와는 다른 상태'를 뜻하며, '근무 중 이상 무'와 같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문맥상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식과는 달리 별나가거나 색다르다'를 뜻하는 '異常(다를 이, 떤떤할 상)'으로 적어야 합니다.</p>						

p.386	<p>[35번 문제 해설 오타 수정]</p> <p>② [X] '畚田(집터 대, 밭 전)'은 '집터와 밭'을 뜻하는 말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徹狀(통할 철, 형사상)', '庸處(땃땃할 용, 곳 처)', '各算(각각 각, 셈 산)'도 적절하지 않은 표기입니다.</p>	<p>② [X] '畚田(집터 대, 밭 전)'은 '집터와 밭'을 뜻하는 말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徹狀(통할 철, 형사상)', '庸處(땃땃할 용, 곳 처)', '各算(각각 각, 셈 산)'도 적절하지 않은 표기입니다.</p>
p.387	<p>[36번 문제 해설 오타 수정]</p> <p>② [X] '旗帶(기 기, 때 대)'는 '중요한 기 위에 달던 좁고 긴 띠'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熒爛(빛날 혼, 빛날 란)'은</p>	<p>② [X] '旗帶(기 기, 띠 대)'는 '중요한 기 위에 달던 좁고 긴 띠'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熒爛(빛날 혼, 빛날 란)'은</p>
P.387	<p>[37번 문제 해설 한자 및 음훈 수정]</p> <p>③ [X] '貶下(낮출 폼, 아래 하)'는 '가치를 깎아내림'을 뜻합니다. '改革(고칠 개, 가족 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을 뜻합니다. '不相似(아닐 불, 서로 상, 닮을 사)'는 '상서롭지 못한 일'을 뜻합니다.</p>	<p>③ [X] '貶下(낮출 폼, 아래 하)'는 '가치를 깎아내림'을 뜻합니다. '改革(고칠 개, 가족 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을 뜻합니다. '不祥事(아닐 불, 상서로울 상, 일 사)'는 '상서롭지 못한 일'을 뜻합니다.</p>
p.396	<p>[59번 문제 해설 수정]</p> <p>② [X] '認識(알 인, 알 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을 뜻합니다. ③ [X] '對處(대할 대, 곳 처)'는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을 뜻합니다. ④ [X] '禪讓(선 선, 사양할 양)'은 '임금의 자리를 물려줌'을 뜻합니다.</p>	<p>② [X]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을 뜻하는 한자어는 '認識(알 인, 알 식)'입니다. '인식(人識)'은 쓰지 않습니다. ③ [X]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을 뜻하는 한자어는 '對處(대할 대, 곳 처)'입니다. '大處(큰 대, 곳 처)'는 도회지(都會地)를 의미합니다. ④ [X]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떨치게 함'을 의미하는 한자어는 '宣揚(배풀 선, 오를 양)'입니다. '禪讓(선 선, 사양할 양)'은 '임금의 자리를 물려줌'을 뜻합니다.</p>
p.396	<p>[60번 문제 해설 수정]</p> <p>① [O] '잘잘못을 의논하여 결정'한다는 뜻은 '訂定(바로잡을 정, 정할 정)'이라 씁니다. 따라서 보기의 '서류 내용을 정정하다'의 내용과 부합합니다.</p>	<p>① [O] '글자나 글 따위의 잘못을 고쳐서 바로잡음'을 의미하는 한자어는 '訂正(바로잡을 정, 바를 정)'을 씁니다. 참고로 '訂定(바로잡을 정, 정할 정)'은 '잘잘못을 의논하여 결정한다'는 뜻입니다.</p>
p.401	<p>[72번 문제 해설 한자 음훈 수정]</p> <p>⑤ [X] '上堂(위 상, 집 당)'은 '불교 용어로 선종의 장로나 주지가 법당의 강단에 올라가 설법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일정한 액수나 수치 따위에 해당'한다는 뜻을 가진 한자어는 '相當(서로 상, 집 당)'입니다.</p>	<p>⑤ [X] '上堂(위 상, 집 당)'은 '불교 용어로 선종의 장로나 주지가 법당의 강단에 올라가 설법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일정한 액수나 수치 따위에 해당'한다는 뜻을 가진 한자어는 '相當(서로 상, 마당 당)'입니다.</p>

2권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35	[08번 제시문 11번째 줄 띄어쓰기 수정] '부처님의 젓이라!' 글씨는 분명 스님 의 솜씨다. 말을 만들어낸 솜씨도 예사롭지 않다.	'부처님의 젓이라!' 글씨는 분명 스님의 솜씨다. 말을 만들어낸 솜씨도 예사롭지 않다.
p.148	[197번 출제 영역 수정] 출제 영역 단어 및 어구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 영역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p.153	[207번 제시문 4번째 줄 큰따옴표 이동]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 라고 적은 바 있다.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
p.263	[72번 문제 해설 띄어쓰기 수정] ③ [X] 주인공은 초반 '전짓불'을 소재로 한 박준의 소설을 읽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가 교차 서술되고 있지 않습니다.	③ [X] 주인공은 초반 '전짓불'을 소재로 한 박준의 소설을 읽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가 교차 서술되고 있지 않습니다.
p.349	[38번 문제 해설 오타 수정] ① [O] '처음의 한아버이'는 '처음 할아버지'라는 뜻으로,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① [O] '처음의 한아버이'는 '처음 할아버지'라는 뜻으로,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 추가 정오표는 '네이버 카페'와 '월비스 고시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미진 선생님과 소통하기

네이버, 유튜브에서 [기미진 기특한 국어]를 검색하세요.

- 네이버 카페 : cafe.naver.com/pskorean
- 네이버 블로그 : blog.naver.com/edu_korean_edu
- 유튜브 채널 : youtu.be/0ORfvstCC6g